牛肉의 國際貿易形態變化와 高級肉生産의 有利性

許 信 行*
金 炳 律**

Ⅰ. 問題의 所在와 硏究目的
Ⅱ. 牛肉의 國際貿易 形態
Ⅲ. 日本의 需給變動과 市場開放 對應戰略
Ⅳ. 韓國 牛肉産業의 基本方向

Ⅰ. 問題의 所在와 硏究目的

쇠고기의 輸入이 점차 확대되어 완전개방의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 畜牛産業의 장래에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나라 養畜家들에게 절박한 숙제요, 하루속히 해결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의 물음에 해당된다.

畜力을 농사에 이용하는 국가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 소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소는 논과 밭을 가는데 役畜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有機質肥料인 廐肥를 만들어 주었고, 輸送力의 제공과 함께 農家副産物을 현금화시켜 주는 중간 매개역할까지 담당해 왔다. 물론 오늘날 産業化過程에서 논밭갈이를 위한 役畜은 대부분 耕耘機로 대체되었고, 廐肥는 化學肥料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농촌의 輸送手段도 畜力에 의한 수레보다 주로 耕耘機에 의한 2輪 내지 4輪車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한 零細小農이나 山間地帶의 奧地에서는 소가 위에서 열거한 多目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설령 소가 肉用目的 이외의 他用途 이용가치를 상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農家資産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 밖으로 커진다는 데 새로운 중요성이 주어진다. 물론 소의 資産的 價値는 소값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1983년 소값이 많이 올랐을 때에는 약 10% 내외를 차지한 적이 있다. 당시 한우 사육농가의 호당 평균 두수가 2頭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소의 비중은 무시못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1988년 전체 農家口 1,826千戶 가운데 38.4%에 해당되는 702千戶가 韓牛를 사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8할이 넘는 농가가 1~2두를 기르는 영세 부업양축가들이다. 그러기에 '소'라고 하는 한 품목의 농산물

* 副院長
** 硏究員

은 韓國의 農家經濟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는 주요 農產物輸出國들의 主產物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輸出物量을 확대시키고자 이들 정부가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품목에 해당된다. 물론 1970년대 후반부터 쇠고기의 國內產供給이 부족되기 시작하여 1978~84년 사이에 연평균 3만M/T씩 수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輸入物量은 外國의 輸入開放壓力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내시장의 부족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輸入한 것이지만 쇠고기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한국을 중요시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자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의 輸入物量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지켜보고 있던 農政當局은 農家所得源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1982년부터 소入殖資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3년초에 송아지값이 두당 1백만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어서 繁殖牛의 사육두수가 늘어났으며, 전체 사육두수도 1985년에는 한우에만 국한시켜 놓고 보더라도 과잉상태에 이르게 되자 정부는 1985년부터 輸入을 중단하였다. 한국을 쇠고기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인정, 장기적인 기대를 걸어 오던 美國과 오스트렐리아는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중단에 실망한 나머지 1988년부터 開放壓力을 가중시키고 급기야는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GATT에 제소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부터 쇠고기의 輸入쿼타를 재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美國은 韓國에게 日本과 같은 방법으로 輸入을 몇년 안에 완전히 자유화시킬 것을 강요해 오고 있다.

쇠고기의 輸入自由化가 언제 밀어 닥칠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쇠고기의 輸入中斷이나 축소는 어렵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리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나라 쇠고기의 國際競爭力 여부인데, 최근 농촌진흥청의 축산시험장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스트렐리아產 쇠고기의 生產費가 生體 kg당 709원인데 비해서 美國產은 1,259원이고, 韓國產은 5倍를 약간 넘는 3,560원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그토록 저렴한 오스트렐리아產 쇠고기라 하더라도 일련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수송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착가격으로 따지면 대충 3분의 1 수준에는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산 쇠고기는 오스트렐리아產 쇠고기와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음이 자명해진다.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 과연 한국 정부나 소飼育農家들이 취해야 될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소의 사육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농산물의 생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쇠고기의 생산성을 높여서 수입 쇠고기와 경쟁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끝까지 버티어 보는 데까지 쇠고기의 輸入反對를 외치면서 貿易摩擦을 일으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돌파구가 있는 것인지?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의문의 해결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세부적으로는 쇠고기의 國際貿易形態를 조사 분석하면서 새로운 高價値肉의 유리성을 탐색코자 한다.

Ⅱ. 牛肉의 國際貿易 形態

세계의 總牛肉生產量은 1984~88년 사이에 연평균 枝肉 기준으로 4천4백만M/T이고, 그 가운데서 11.4%에 해당하는 5백만M/T이 수출되며, 4백

만M/T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美農務省의 해외농업 서비스局에서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쇠고기 총생산량의 1할인 4~5백만M/T이 교역되는 셈이다.

우선 쇠고기의 世界貿易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알아보기 위해서 10大 生産 및 輸出入國의 실태를 파악키로 한다. <表 1>에서 보면 美國이 세계 총생산량의 25%를 차지하여 1位에 서 있고, 다음에는 소련과 아르헨티나의 순위로 나타나 있다. 이들 10大 生産國은 세계 총생산량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쇠고기의 輸出國으로서는 EC의 23.2%를 제외하고, 單一國으로서는 오스트렐리아가 21.1%를 차지하여 1位國이며, 이어서 브라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순위로 나타나 있고, 이들 10大 輸出國은 세계 총수출물량의 8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계 제1의 쇠고기 생산국인 美國이 고급육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제1의 쇠고기 輸入國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EC, 소련, 일본, 이집트, 브라질, 캐나다,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순위로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다음에는 牛肉交易國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 비교적 自明한 윤곽을 파악케 된다. <表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牛肉交易國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의 형태는 쇠고기의 純輸出國으로서 국민 1인당 土地面積이 많거나 인도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쇠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 아니면 南美의 일부 국가처럼 外貨獲得을 위해서 수출을 시도하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의 형태는 쇠고기의 純輸入國인데 中東에 있는 사막지대의 나라이거나 日本·台灣·韓國처럼 국민 1인당 土地面積이 기본적으로 적으면서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으로 쇠고기의 需要가 급증되는 나라 또는 앞선 開途國으로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번째의 형태는 쇠고기의 輸出入을 동시에 수행하는 混合型의 交易國으로서 많은 先進諸國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EC諸國은 물론 美國과 캐나다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의 일부 국가들이 이런 부류의 나라에 해당된다.

輸出入을 혼합시킨 交易國 가운데서도 쇠고기의 輸出物量이 輸入物量보다 많은 형태와 반대로 輸入物量이 輸出物量보다 더 많은 형태가 있

表 1 쇠고기의 生産 및 輸出入 10大國, 1984~88년

단위 : %

國家順位	生産	輸出	輸入	輸出率	輸入率
1	美國 (25.0)	EC (23.2)	美國 (34.5)	뉴질랜드 (72.3)	사우디 (303.3)
2	소련 (17.8)	오스트렐리아 (21.1)	EC (15.6)	오스트렐리아 (54.9)	이스라엘 (147.7)
3	아르헨티나 (6.1)	브라질 (11.1)	소련 (10.2)	루마니아 (42.7)	日本 (48.9)
4	브라질 (5.2)	뉴질랜드 (9.7)	日本 (9.6)	우루과이 (41.9)	이집트 (43.8)
5	프랑스 (4.3)	아르헨티나 (7.3)	이집트 (7.1)	헝가리 (39.2)	캐나다 (12.0)
6	서독 (3.7)	美國 (5.9)	브라질 (5.1)	코스타리카 (33.4)	유고 (9.9)
7	호주 (3.3)	우루과이 (3.6)	캐나다 (4.2)	오스트리아 (24.9)	터키 (9.7)
8	멕시코 (2.9)	캐나다 (2.7)	홍콩 (2.8)	온두라스 (24.4)	美國 (8.9)
9	이태리 (2.7)	루마니아 (2.6)	사우디 (1.9)	과테말라 (22.7)	태만 (7.9)
10	영국 (2.4)	인도 (1.6)	이스라엘 (1.6)	브라질 (18.3)	스위스 (7.6)
	計 73.4	88.8	92.6	世界 (8.5)	世界 (6.5)

註1) 生産, 輸出 및 輸入란의 ( )안은 總量에 대한 점유비율임.
2) 輸出率과 輸入率의 ( )안은 個別國의 生産量에 대한 輸出量 및 輸入量의 비율임.
자료 : USDA, *World Livestock and Poultry Situation*, 1988. 9.

다. 前者의 경우에 속하는 국가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브라질,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EC, 폴란드 등이고, 後者에 속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캐나다, 터키, 미국, 스위스, 소련 등이다. 국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고 先進의 정도가 앞선 그런 국가들에서 輸入物量이 輸出物量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쇠고기 交易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렐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南美諸國이 쇠고기를 주로 수출하는데 반해서 미국, 소련, 일본 등이 主要 輸入國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과 대만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서 輸入物量을 늘려 나가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정도 살펴보면 쇠고기의 交易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개략적이나마 윤곽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고 믿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것이란 다름이 아닌 다음의 두 가지에 모아진다. 하나는 쇠고기의 輸出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混合型의 交易國이 왜 생기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의 관심은 우리 나라와 비슷하면서 앞서 나간 日本의 경우 쇠고기의 國內自給率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여기서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질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混合形態에 속해 있는 미국의 交易內容을 알면 쇠고기의 輸入開放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우리 나라는 高級肉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다. 둘째 질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日本 畜牛生産 여건과 경제발전의 정도를 감안할 때 쇠고기의 생산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도 70%에 가까운 쇠고기의 自給率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우리 나라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배움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表 2 10大 牛肉交易國의 形態, 1984~88년 기준

단위 : %

國家順位	純輸出國		純輸入國		輸出入國			
					輸出 > 輸入		輸出 < 輸入	
1	뉴질랜드	(72.3)	사우디아라비아	(303.3)	아일랜드	(76.0> 2.3)	이태리	(9.5<40.2)
2	오스트렐리아	(54.9)	그리스	(177.9)	덴막	(73.7> 7.5)	영국	(17.8<32.9)
3	루마니아	(42.7)	이스라엘	(147.7)	네덜란드	(61.1>13.3)	캐나다	(9.9<12.0)
4	우루과이	(41.9)	일본	(48.9)	헝가리	(39.2> 6.5)	터키	(1.8< 9.7)
5	코스타리카	(33.4)	이집트	(43.8)	서독	(29.1>18.3)	미국	(2.0< 8.9)
6	온두라스	(24.4)	포르투칼	(14.2)	오스트리아	(24.9> 1.1)	스위스	(1.6< 7.6)
7	과테말라	(22.7)	대만	(7.9)	프랑스	(24.4>16.2)	스페인	(1.3< 6.6)
8	도미니카공화국	(15.5)	남아공	(5.5)	브라질	(18.3> 6.4)	남아공	(0.3< 5.5)
9	핀란드	(13.2)	한국	(5.3)	스웨덴	(12.5> 7.5)	소련	(0.2< 3.7)
10	인도	(13.2)	필립핀	(4.2)	체코	(12.4> 2.2)	멕시코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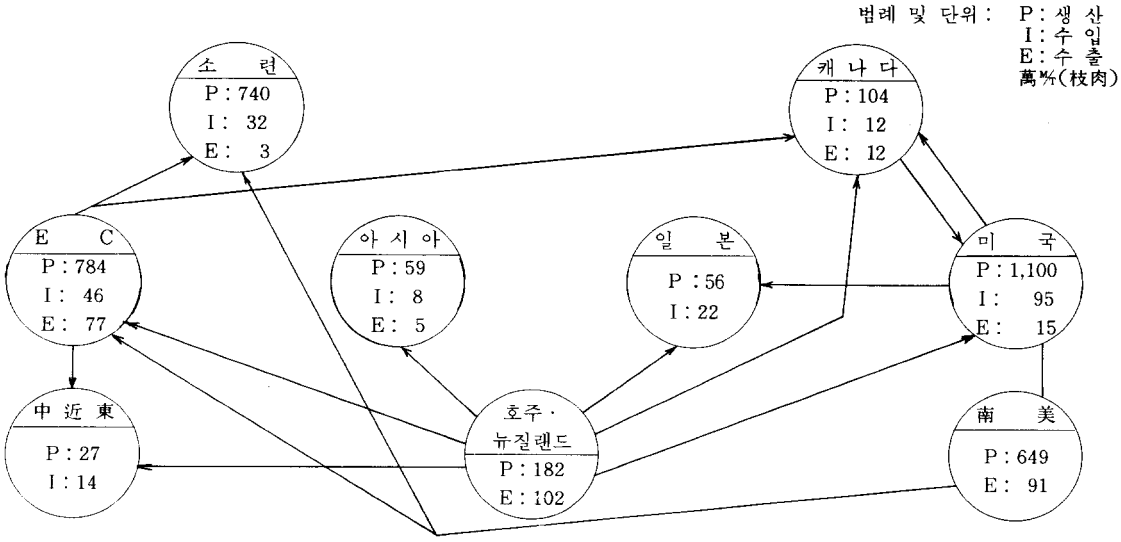
註1) 區分은 1984~88 사이 각국가의 輸出率(=(輸出量/生産量)×100)과 輸入率을 구하여 이들의 비교를 통하였음.
2) 純輸出國의 ( )안은 해당국가의 輸出率을 나타냄.
3) 純輸入國의 ( )안은 해당국가의 輸入率을 나타냄.
4) 輸出入國의 ( )안은 輸出率과 輸入率을 나타냄.

자료 : USDA, *World Livestock and Poultry Situation*, 1988. 9.

우리가 앞에서 갖는 흥미로운 관심과 어쩌면 우리 나라 양축가에게 매우 중요한 해결의 열쇠를 쥐어 줄지도 모를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쇠고기는 단순한 쇠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쇠고기면 다 같은 쇠고기이지 무엇이 다르냐고 오스트렐리아人들처럼 되물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아마도 한 품목 가운데서 쇠고기만큼 다양한 부분과 품질 그리고 등급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쇠고기의 交易이 복잡해지고 日本과 같은 나라가 높은 自給率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美國은 수출물량보다 더 많은 쇠고기를 수입해 들이고 있다.

日本의 牛肉需給事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왜 쇠고기의 混合型交易이 생기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코자 한다. 사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을 얻기 위해 교역된 쇠고기의 품질 내지 등급에 대한 자료를 획득코자 노력해 보았지만 그런 자료의 획득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첫째, 草地에서 자유스럽게 放牧해 기른 쇠고기의 품질과 集團飼育場(미국의 경우 feedlot)에서 濃厚飼料를 급여하여 비육시킨 쇠고기의 품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둘째, 集團飼育場에서도 생산목적과 사육방법에 따라 쇠고기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집단사육장에서 농후사료를 급여할 때 增體를 목적으로 영양가 높은 사료를 중심으로 하여 비육시킬 때의 쇠고기의 품질과 高級肉質의 생산목적으로 고급 농후사료의 투여와 함께 1日 增體量을 0.7㎏ 이내에서 억제시키되 增減의 폭을 극소화시키는 고도의 사육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쇠고기의 품질은 서로 다르다고 한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소 한 마리 안에서도 部位에 따라 다양한 품질 내지 등급의 쇠고기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림 1 世界 牛肉交易의 主流, 1985



자료: 木村勝紀, 「アメリカの 肉牛肥育と牛肉産業の徹底的研究」, 1988를 참고로 하여 재조정함.

그런데 放牧에 의한 粗飼料給與肉은 土地粗放的인 생산형태의 것인데 반해서 集團飼育場의 濃厚飼料 給與肉은 資本集約的인 생산형태의 것이며, 高級肉은 勞動 및 技術集約的인 생산형태의 쇠고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第1類型이라고 부를 수 있는 土地粗放的인 쇠고기의 생산은 오스트렐리아와 뉴질랜드 등 土地資源이 풍부한 국가에서 생산의 유리성을 가질 수 있고, 第2類型의 資本集約的인 쇠고기의 생산은 美國과 같이 생산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 유리하고, 第3類型의 勞動 및 技術集約的인 생산은 日本이나 韓國 및 台灣과 같은 국가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에 美國은 第2類型의 고급 쇠고기를 수출하는 동시에 第1類型의 보통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日本은 第3類型의 쇠고기 생산을 통해 第2類型의 輸入肉을 대체시키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이 第2와 第3類型의 쇠고기 품질을 구분하고 후자에 돈을 더 지불하겠다고 나설 정도의 우량한 쇠고기 생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은 貿易形態라는 측면에서 輸出入의 混合型과 日本의 輸入代替型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高級部位나 高級肉을 일본에 수출하는 한편 高價肉을 생산하여 국내의 高級需要를 충족시키면서 보통 내지 低級肉을 수입하는 混合型의 貿易戰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추리된다.

Ⅲ. 日本의 需給變動과 市場開放 對應戰略

日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韓國과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國土面積이 좁으면서도 많은 부양인구를 가지고 있다든지, 小農國이면서 工業中心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든지, 농산물 輸入開放 壓力을 받는 형태나 그에 대한 對應姿勢 측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日本은 韓國보다 상당 기간 앞서서 발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들의 경험을 배워 두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서 日本의 牛肉需給事情과 市場開放에 대한 대응전략을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日本의 쇠고기 생산량은 <表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70년 28만M/T에서 연평균 3.97%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57만M/T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쇠고기의 需要量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5.61%씩 확대되는 바람에 輸入量이 연평균 11.9%씩이나 급증하였다. 그 결과 1970년 3만 7천M/T의 쇠고기 輸入物量이 1988년에는 28만M/T을 훨씬 넘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쇠고기의 自給率은 1988년 66.6%에 이르고 있으니 불리한 생산여건과 높은 국내외 가격차를 감안할 때 그 뒷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리된다.

日本政府가 1970~88년 사이에 경험해 오던 모든 여건, 즉 쇠고기의 需給에 영향을 준 요인

表 3 日本의 牛肉需給變動 趨勢, 1970~88

단위 : M/T

年 度	供給量		需要量
	生産量	輸入量	
1970	282,072	37,566	319,618
1975	335,448	91,160	426,599
1980	431,368	171,735	603,088
1982	483,088	198,275	681,345
1983	505,222	207,965	713,154
1984	538,560	212,964	751,473
985	555,800	225,324	781,067
1986	562,591	268,386	830,928
1987	566,000	223,606	789,606
1988	568,000	285,417	853,417
年平均 增加率(%)	3.97	11.92	5.61

자료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食肉流通統計」, 各年度 大藏省,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들이 2000년까지 큰 변동없이 그대로 있다면 需給의 展望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豫測作業을 시도해 본 결과는 <表 4>에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따르면 쇠고기 생산량은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78만M/T에 이르게 되고, 동시에 輸入物量도 급증하여 消費量이 125M/T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쇠고기의 自給率이 2000년에도 62% 수준을 유지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쇠고기의 自給率이 1960년에 95.9%, 70년에 89.5%, 80년에 72.2%, 90년에 65.0%(예측)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0년의 62% 수준은 무리한 예측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表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日·美간의 雙務協商에 의해서 합의된 日本의 牛肉輸入自由化計劃이라는 새로운 여건의 변화에 있다. 합의내용에 의하면 日本政府는 1990년까지 쇠고기의 輸入物量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다가 91년부터는 완전하게 자유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輸入關稅率을 70~95% 수준으로 현저하게 높였다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어쨌든 이 自由化計劃은 분명코 쇠고기의 需給豫測値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日本人들이 지금까지 대응해 나온 노력과 기본적인 자세를 감안할 때 쇠고기의 輸入自由化計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需給狀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 이유는 <그림 2>에서 보는 내용에 의해 상당히 설명되고 있다. 국내 牛肉供給源의 主流는 乳用種肉과 和牛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表 4 日本의 牛肉生産, 輸入, 消費量의 豫測値, 1970~2000

단위 : 1,000M/T(%)

年 度	生産量	輸 入 量		消 費 量	
1970	282	33		319	
1975	335 (3.5)[1]	91 (22.5)		415 (5.4)	
1980	431 (5.2)	172 (13.6)		597 (7.5)	
1985	556 (5.2)	225 (5.5)		774 (5.3)	
1990	609[2] (1.8)	268~311 (3.6~ 6.7)	324 (7.6)	877~920[3] (2.5~3.5)	933[4] (3.8)
1995	694 (2.6)	446~566 (10.7~12.7)	399 (4.3)	1,140~1,260 (5.4~6.5)	1,093 (1.9)
2000	778 (2.3)		475 (3.5)		1,253 (2.8)

註 : 1) 모든 ( )안은 과거 5년간 年平均增加率로서 幾何平均한 것임.
2) 生産量의 趨勢線을 구하여 2000년까지 豫測하였음.
趨勢線 : $BFP_t = 32.8652 + 19.5025\ T$, $r^2 = 0.0199$,
여기서 T = 1960~88
3) 日本農水省畜産局의 展望임.
農水省畜産局, 「酪農及び肉用牛生産の近代化を圖るための基本方針」 및 「同參考資料」, 1988. 3
4) 消費量의 趨勢線을 구하여 2000년까지 豫測하였음.
趨勢線 : $BFC_t = 40.9288 + 26.8358T$, $r^2 = 0.9593$,
여기서 T = 1960~88

表 5 日本의 牛肉輸入自由化計劃의 主要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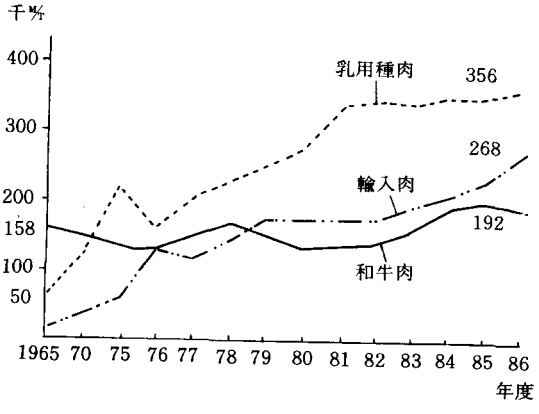
區 分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年이후
制 度	非自由化, 輸入量의 數量制限			自 由 化			
總 輸 入 量 (千M/T)	274	334	394	數量制限철폐 (단, 協議結果에 의함)			
쿼 터 量 (千M/T)	10	13	16				
通 常 關 稅 (%)	25.0			70.0	60.0	50.0	再 協 議
* 緊急調整措置時 調整關稅(%)				95.0	85.0	75.0	再 協 議

* 緊急調整措置
(1) 발동기준 : 前年度에 비해 輸入量이 120% 초과할 때
(2) 輸入數量이 발동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主要輸入國과 協議
① 協議결과에 따라 數量制限
② 協議가 안되면 調整關稅를 적용

資料 : 木村勝紀, 「アメリカの肉牛肥育と牛肉産業の徹底的研究」, 1988

사실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게 될 배경에 해당된다. 젖소고기는 쇠고기의 輸入이나 쇠고기

그림 2 日本의 牛肉供給源의 變動, 1965~86



資料：日本農林水產省,「食肉流通統計」, 各年度
日本農林水產省畜產局食肉鷄卵課編,「食肉便覽」, 1987

값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牛乳의 수입이나 價格에 의해서 영향을 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牛乳消費量이 급증하는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체 쇠고기의 공급에서 차지하는 乳用種肉의 몫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和牛肉 역시 日本人들의 소득증대와 高級肉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쉽게 감축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1991년부터 취해질 쇠고기의 輸入自由化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牛肉需給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쇠고기의 輸入自由化가 이루어지면 쇠고기 값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고, 또 需要의 확대에 따른 輸入物量의 流入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國內產 牛肉의 소비가 상대적

表 6 日本牛肉의 規格 및 等級區分, 供給量構成比와 需要形態, 1986

區分	規格[1]	都賣價格[2]	1975년대비 都賣價格上昇率	構成比[3]		等級區分[4]	需要形態
		円/㎏	%	%			
國產肉	和 牛(特選)	3,061	46.2	0.7	10.4	超高級肉 (高級肉)	(a)業務用 中·高級外食產業 日本料理店 레스토랑, 호텔
	和 牛(極上)	2,533	39.6	2.1			
	和 牛(上)	2,184	34.9	7.6			
	和 牛(中)	1,862	30.6	17.8	18.1	高級肉 (高級肉)	
	乳用牛(上)	1,604	16.3	0.3			
	和 牛(下)	1,584	27.0	12.1	23.1	中級肉 (大衆肉)	(b)家庭用
	乳用牛(中)	1,359	8.9	11.0			
	乳用牛(下)	1,249	9.1	19.9	28.0	低級肉 (大衆肉)	
	和 牛(等外)	1,080	17.4	0.3			
	乳用牛(等外)	905	6.1	7.8			
輸入肉	熟成肉	1,359	—	5.0	20.4	中·低級肉 — 大衆肉	(c)業務用 大衆外食產業, 패미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給食
	冷藏肉	1,175	—	0.4			
	冷凍肉	1,130	—	14.7			

註：1) 輸入牛肉의 規格란은 保管形態에 의한 구분이고 規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2) 都賣價格은 中央都賣市場平均, 단 和牛는「和牛去勢」, 乳用牛는「乳用肥育수소」임.
單價는 國產肉의 경우 枝肉 ㎏當이고, 熟成肉(aged)의 경우 部分肉 fullset 및 枝肉이며, 冷凍肉(frozen)은 部分肉部位別去來 ㎏當價格임.
3) 構成比는 中央都賣市場去來總量에서 점하는 比率임. 현재 國產肉出荷量중에서 都賣市場經由率은 33%이며, 輸入肉중에서 都賣市場經由率은 32%임.
國產肉에 대해서는 乳用肉보다 和牛의 都賣市場經由率이 높음. 따라서 構成比 數値는 和牛가 供給總量에서 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음.
4) 等級區分은 標準에 의한 것임(營田育郎,「牛肉の流通機構」를 참고하였음).
또한 需要形態는 市場外 流通部分도 포함한 等級區分에 대한 개략적 대응관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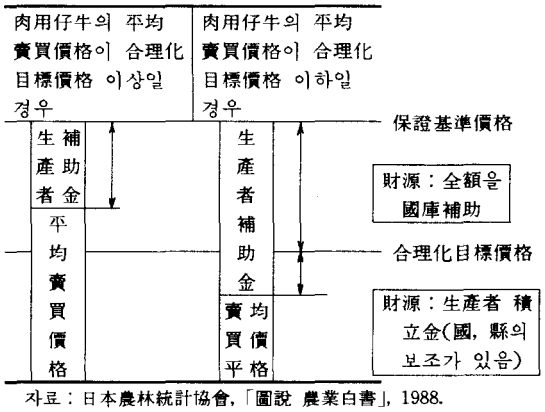
資料：新山陽子,「肉用牛經營の 課題と展開方向」, 農林業 問題硏究, 24권4호, 1988. 12.

으로 줄고 自給率도 동시에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日本의 牛肉 需給變動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比較優位性을 전혀 갖지 못한 日本畜牛産業이 어떻게 하여 和牛에 의한 高級肉을 생산해 내고 그 需要를 일정하게 확보하면서 쇠고기의 自給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지탱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이다.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表 6>에서 발견할 수 있다. 日本의 在來種에서 생산되고 있는 和牛肉이 최고급육에 해당되고, 그 값도 輸入肉價의 2倍 이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乳用牛肉마저도 輸入肉보다 더 높은 등급에 속해서 그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고급육들의 가격상승이 매우 빨랐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超過需要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日本經濟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삼을 경우 이들 國內産 高級肉의 需要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쇠고기의 自給率은 일정 수준에서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日本은 和牛의 고급화를 통해서 늘어나는 高級肉需要를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表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肉用仔牛價格까지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對應策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和牛肉 生産의 고급화를 위해 日本政府와 養畜家들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사양관리능력의 배양에 힘쓰고 飼料資源의 개발과 함께 市場流通의 개선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流通에 특기할만한 것은 等級의 다양화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肉處理技術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고급육의 생산과 판매 및 처리능력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日本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이 韓國에 있어서 중요한 착안사항이라고 지적해 둘 수 있다.

表 7 쇠고기 輸入自由化에 대한 日本의 仔牛價格 安定對策 內容



자료：日本農林統計協會, 「圖說 農業白書」, 1988.

Ⅳ. 韓國 牛肉産業의 基本方向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韓國은 세계의 牛肉交易形態라는 측면에서 관찰할 때 日本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經濟發展이나 畜牛産業의 생산여건 등 다방면에 걸쳐서 한국은 일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食品의 消費形態 變化도 일본의 변천과정을 뒤좇아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牛肉輸入 擴大 내지 自由化에 대한 日本의 對應姿勢는 바로 우리 나라에 시사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의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88년 3.4㎏으로서 세계평균 10㎏ 내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앞으로 經濟成長이 지속됨에 따라 쇠고기의 需要量은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國內與件은 모든 면에서 불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貿易黑字의 누증으로 인하여 쇠고기의 輸入을 개방토록 하는 외국의 압력 또한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육의 생산비로 따져도 한국의 牛肉生産費는

오스트렐리아産의 5倍요, 美國産의 2.5倍에 해당된다. 그러기에 과거와 같은 생산양식을 가지고서는 쇠고기를 주로 수출하는 오스트렐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美國 등의 양축가와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차원의 對應方法을 모색하지 않으면 쇠고기의 國內市場開放과 함께 畜牛産業은 거의 사라지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젖소고기의 생산몫은 완만하게나마 커지겠지만, 소비자들이 젖소고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輸入肉에 대한 선호도가 日本과는 달리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 韓國政府나 養畜家들이 취할 기본적인 자세는 日本과 같이 빨리 韓牛의 개량에 의한 最高級肉 내지 高價値肉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벌써 한국에서도 소득의 향상에 따라 고급육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高所得層의 선호도를 國産高級肉으로 유도 내지 얽어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동시에 韓牛의 高級部位나 高價値肉을 日本市場에 수출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日本은 지금 세계 제1의 經濟大國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형태도 매우 고급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그에 알맞는 最高級肉을 생산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하여 國內市場은 물론 日本의 高級肉市場까지 일부 점령하게 되면 젖소고기의 생산과 함께 쇠고기의 自給率을 日本水準인 60~70%선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나 養畜農家들이 韓牛의 개량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對應戰略과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쇠고기의 生産供給에 대해서는 第1類型의 오스트렐리아産과 第2類型의 美國産은 수입하여 보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설령 쇠고기의 輸入을 자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交易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견된다. 왜냐하면 오스트렐리아나 美國이 第3類型의 최고급육 생산을 시도할 수도 없거니와 막상 그런 노력을 편다고 하더라도 생산의 유리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만이 養畜農家의 소득증대는 물론 高所得層의 최고급육 수요 충족과 함께 國民經濟 發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參考文獻 및 資料

畜協中央會,「畜産物需給 및 價格資料」, 1989.

畜協中央會 調査部,「海外畜産物 및 飼料穀物價格動向」, 1989.

甲斐 諭, "國際化時代の牛肉の生産と流通,"「農産物市場研究」, 第28號, 1989. 4.

_____,「肉牛の生産と流通」, 明文書房, 1982.

國際食糧農業協會,「世界の畜産」, 通卷 145號, 1989. 2.

宮崎 宏, "世界の食肉需給變動と市場戰略,"「國際化時代の農業展望」, 農業と經濟 臨時增刊號, 第55卷 第5號, 1989.

農林水産大臣 官房調査課,「食料需給表」, 1988.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畜産統計」, 1988.

農林統計協會,「農業白書」, 1985, 1988.

木村勝紀, 「アメリカの肉牛肥育と牛肉産業の徹底的研究」, 1988. 9.

新村陽子, "肉用牛經營の課題と展開方向,"「農林業問題研究」, 第24卷 第4號, 1988. 12.

FAO, *Production Yearbook*, and *Trade Yearbook*, 1970~87.

USDA, *Livestock and Poultry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1988.